

“7개월 만에 모인 7명... 하나라는 부분 강조”

“도깨비” 저승사자와 달라... 보면 알아요”



“친분 있는 방탄소년단은 맛있는 선배들이죠. (미국 빌보드 성과에) 부럽기도 했고, 우리도 긴장하고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다른 신인 그룹들도 많아졌으니 도태되지 않게 열심히 할 겁니다.”

다국적 보이그룹 갓세븐은 지난 앨범 판매량이 33만장을 돌파할 정도로 데뷔 3년 만에 탄탄한 팬덤을 구축했다. 해외에서도 인기가 높아 ‘포스트 방탄소년단’ 기대주이자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의 기둥이 될 재목으로 성장했다. 아직 차곡차곡 쌓인 인기가 가시적인 성과로 터져 나오진 않았지만, 이미 10~20대에서 갓세븐의 영향력은 대단하다.

갓세븐은 11일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서 가진 새 앨범 ‘세븐 포 세븐’(7 for 7) 발매 인터뷰에서 최근 미국 빌보드의 메인차트를 휩쓴 방탄소년단의 성과를 축하하며 이 같은 의지를 밝혔다.

“스스로 팬들이 늘어났다고 생각한 기점은 지난해 3월 ‘플라이트 로그’(FLIGHT LOG)란 제목으로 석 장의 시리즈 앨범을 선보이기 시작하면서다.”

JB와 진영은 “‘플라이트 로그’ 3부작을 통해 팬들이 생긴 것 같다”며 “이때부터 스토리를 갖고 얘기하는 방식을 택하자 팬들이 이 점을 알아줬다. 시리즈 첫 앨범 ‘디파트처’(DEPARTURE)를 시작으로 우리의 여정을 보여주면서 금금증을 유발했고 ‘갓세븐이 이런 것을 할 수 있구나’란 것을 보여준 것 같다”고 돌아봤다.

새 앨범 ‘세븐 포 세븐’은 7개월 만에 일곱 멤버가 완전체로 뭉쳤다는 점을 강조한 제목이다. 그 사이 흥곡 출신 째스는 중국에서 솔로 활동을 성공적으로 펼치고, JB와

갓세븐 새 앨범 ‘세븐 포 세븐’ 발매

‘포스트 방탄소년단’ 평가기쁘고 감사

다국적 그룹·다양한 스타일 큰 장점

진영은 유닛 ‘JJ 프로젝트’로 활동해 완전체에 대한 팬들의 갈증이 있었다.

JB는 작사·작곡에 참여한 타이틀곡 ‘유 아’(You Are)에서 기다려준 팬들이 있기에 큰 힘이 된다는 고마움을 표현하고 싶었다고 한다. 힘들고 지칠 때 바라본 하늘처럼 너라는 존재가 나의 길이 되어주길 바란다는 희망적인 노랫말이 담겼다.

“떨어져 있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7개월 만에 컴백하니 팬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싶었어요. 또 우리가 하나란 단독함도 보여주고 싶었고요. 모두 팀에 대한 의리가 있고 팀을 지키고 싶다는 꿈이 있으니 흔들리는 일은 없을 겁니다.”(JB)

그러자 중국 활동과 맞물려 지난달 갓세븐의 일본 활동에서 빠져 ‘탈퇴설’이 불거진 째스는 “솔로로 활동하며 나의 다른 모습을 보여줬지만 난 갓세븐의 째스”이라고 강조하는 추임새를 넣었다.

아울러 JB뿐 아니라 멤버들이 7곡 전곡의 작사·작곡에 참여해 음악적인 성장을 보여주는 데 주력했다.

영재가 작사·작곡, 뱀뱀이 작사에 참여한 ‘문 유’(Moon U), JB의 자작곡 ‘틴에이지’(Teenager), 진영의

자작곡인 일렉트로니카 장르의 ‘파이어워크’(Firework) 등 각기 개성을 드러낸 곡들이다.

진영은 “각자 음악적인 성장과 능력이 있다”며 “여러 스타일을 선보여 갓세븐만의 색깔이 없다고 지적하는 분들도 있었는데, 계속하다 보니 하나의 스타일을 추구하지 않고 여러 시도를 하는 것이 우리의 장점이 됐다”고 설명했다.

또 다국적 그룹이기에 지금의 자리에 오기까지 쉽지 않았지만 멤버들은 “팀의 가장 큰 강점도 다국적 멤버들이 모였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팀에는 째스를 비롯해 태국 출신 뱀뱀, 대만계 미국인 마크가 있다.

진영도 “여러 나라에서 모여 팀을 이루는 과정이 쉽지 않다”며 “해외와 멤버들은 음악적인 욕심과 열정이 있기에 이곳까지 온 것”이라고 치켜세웠다.

그러자 뱀뱀은 “연습생 때부터 3~4년을 함께 생활해 데뷔 때부터 친한 사람들끼리 뽀진 느낌이었다”며 “막상 같이 있으면 누가 외국인인지...”라고 웃었다.

박진영 프로듀서가 이들에게 갖는 기대감도 크다. 2PM이 멤버들의 입대로 완전체 공백기가 생겼기에 JYP 내에서 갓세븐의 입지는 더욱 중요해졌다. 최근 박진영은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이 팀이 무서운 건 4년째 계속 성장하고 있다는 것이다”란 글을 올렸다.

진영은 “박진영 프로듀서는 일이 많도록 7명이 하나가 돼야 한다”, “음악적인 색깔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신다”며 “가수로서 뽀진하고 싶으면 음악과 노래를 열심히 해야 한다고 조언하시는데, 2PM 형들이 입대하고 후배들도 나오니 부끄럽지 않은 선배가 되고 싶다. 나태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OCN 새 주말극 ‘블랙’ 한무강 역 송승헌

“아무래도 저승사자가 나오니 ‘도깨비’와 비교될 수밖에 없겠지만, 그런 우려는 첫 회만 보셔도 해소될 겁니다.”

오는 14일 첫 방송하는 OCN 새 주말극 ‘블랙’에서 저승사자 블랙을 연기하는 배우 송승헌(41)은 11일 서울 논현동 임피리얼팰리스 호텔에서 열린 제작발표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블랙의 캐릭터가 tvN 인기 드라마 ‘도깨비’ 속 이동욱이 연기한 저승사자와 비교되는 데 대해 자신감을 표현한 것이다.

블랙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순둥이’ 형사 한무강의 몸에 기생하지만 정작 인간의 감정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냉혈한이다. 그러다 죽음을 미리 보는 여자 강하람(고아라 분)을 만나게 되면서 변화를 겪게 된다.

송승헌은 “‘블랙’은 소재, 장르, 전개 과정 등 모든 게 ‘도깨비’와는 차별화된다”며 “블랙 캐릭터도 감정이 없는 인물로서 인간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도깨비) 속 저승사자와는 다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작품에 참여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처음 대본을 봤을 때는 낯설고 어렵다고 생각했지만, 불수록 좋다고 복선이 뛰어났다. 상상력이 뛰어난 작품”이라고 말했다.

14살 연하 고아라와의 호흡에 대해서는 “세대 차이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고 수차례 강조해 웃음을 자아냈다.

한편 죽음을 예측하는 강하람 역을 맡은 배우 고아라(27)는 “장르극은 첫 도전이라 신기하면서도 열정이 더 생긴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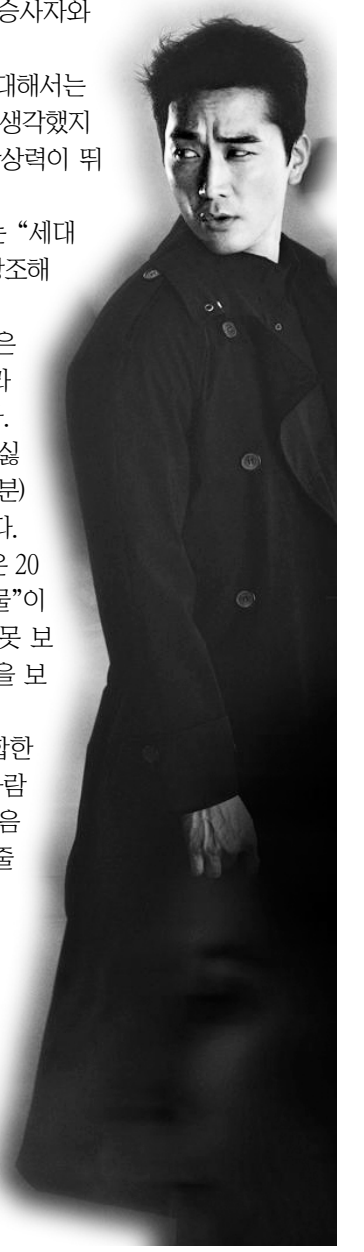
극 중 하람은 타인의 죽음을 보는 능력이 있어 선글라스를 쓰고 다니지만, 블랙(송승헌 분)과 만나면서 죽음을 앞둔 생명을 구하게 된다.

고아라는 자신의 캐릭터에 대해 “하람은 20년 넘게 죽음을 봐도 익숙해지지 않는 인물”이라고 소개하며 “개인적으로 무서운 것을 못 보는데 감정 이입이 잘됐다. 초반에는 대본을 보면서 악몽도 많이 꿴다”고 설명했다.

‘블랙’은 범치 스릴러와 판타지가 결합한 장르극이다. 일말의 여지도 없이 죽은 사람을 데려가던 블랙이 하람과 손을 잡고 죽음이 아닌 생명을 구하게 되는 게 극의 큰 줄거리다.

연출을 맡은 김홍선 PD는 “몇 년 전부터 저승사자 이야기를 기획했는데 잘 진행되지 않다가 ‘블랙’ 대본을 받고서 ‘이건 내가 해야 하는 팔자인가 보다’라고 생각했다. 서사구조에 집중하면 더 즐겁게 볼 수 있는 작품”이라고 말했다.

송승헌과 고아라 외에 이엘, 김동준 등이 출연한다. 14일 오후 10시 20분 첫 방송/연합뉴스



TV 프로그램 12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 / SBS
6	00 KBS 뉴스광장	10 걸어서 세계 속으로	00 휴먼 다큐 사람이 좋다 스페셜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5 아침이 좋다	00 MBC 뉴스투데이 20 아시아의 전통시장 50 훈장 오순남	30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다큐멘터리 3일 스페셜	30 좌충우돌 만국유람기	25 닥터 365 30 달콤한 현수
9	30 KBS 뉴스	00 TV스셜 꽃피어라 달순아 40 여유만만	30 김경식의 영화 대 영화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50 다큐멘터리 3일	50 병원선(재)	10 SBS 뉴스 25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1	00 UHD 명품역사관 장영실 50 감성툰 고평입니다 2	50 매드독(재)	00 밤상 차리는 남자(재)	00 애니갤러리 30 고양이 보인다
12	00 KBS 뉴스 12 30 영상앨범 산(재)	00 방송정보 스페셜	15 뽀글이 사랑해 45 MBC소프 LPGA KEB하나은행 챔피언십 골프 4라운드	00 SBS 12 뉴스 50 지식 토크쇼 55 특목 보형설계
1	00 사랑의 가족 50 꼬마농부 라비	00 생생정보 스페셜	00 방송아 사랑해 45 MBC소프 LPGA KEB하나은행 챔피언십 골프 4라운드	55 닥터 365
2	20 반지의 비밀일기 50 코리아 지오그래픽 플러스(재)	00 KBS 뉴스타임 50 자동차부품엑스포 위키 2	00 방송아 사랑해 45 MBC소프 LPGA KEB하나은행 챔피언십 골프 4라운드	00 뉴스브리핑
3	05 다큐 공감(재)	20 TV 유치원 50 여유만만	00 양크로 MBC 스페셜 (커피에 미치다)	00 여행배를 로그인 코리아 (재) 55 지식 토크쇼
4	00 4시 뉴스집중	50 토이킵	00 MBC 이브닝 뉴스 40 병원선(재)	00 SBS 오뉴스 45 KBC 저녁뉴스
5	00 KBS 뉴스 5 10 공감다큐, 사람 30 팔도발상 스페셜(재) 40 남도 지오그래피	05 터닝메카드 R 20 제보자들	10 생방송 오늘 저녁	00 정글의 법칙(재)
6	00 제22회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식	20 2017 프로야구 준플레이오프 4차전 (롯데 : NC)	15 돌아온 복단지 55 MBC 뉴스데스크	00 날씨와 생활 05 생방송 TV블로그 꿈지락
7	00 KBS 뉴스7 35 한국인의 밤상	25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35 해피타임 명작극장 스페셜 (뉴하트)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
8	00 KBS 뉴스9 40 2017 KBS 대기극 UHD 순례 4부작	00 매드독	05 허끝으로 만나는 중국 스페셜 (계절의 맛)	00 당신이 잠든 사이에
9	35 KBS 뉴스라인	10 해피 투게더 1~2부	10 휴먼 다큐 사람이 좋다 스페셜	10 자기야 - 백년손님
10	05 청소년드라마 안단테(재)	40부세상의 모든 다큐(재)	10 TV예술무대	30 나이트라인
11	00 걸어서 세계속으로 55 인간극장 스페셜(재)			

EBS1	
05:00 왕초보 영어 05:30 통일의 길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1) 06:00 한국기행(재) 06:20 세계테마기행(재) 07:00 레인보우 루비 07:30 똑막맨 07:45 뽀뽀뽀 뽀로로 08:00 덩동덩 유치원 1~2 08:30 공룡탐험대 고고디노(재) 08:45 수확이 아홉 09:00 주사위 요정 큐비주 09:30 톨링 09:40 다문화 고부 열전 스페셜	10:30 한국기행(재) 10:50 최고의 요리비결 (올리브유 새우볶음과 마늘바게트) 11:20 세계테마기행(재) 12:00 EBS 정오 뉴스 12:10 장수의 비밀 (신바람 할배의 인생찬가) 12:40 지식체널e 12:45 영웅 (우물증, 사인을 놓치지 마라) 13:40 다큐영화 - 길 위의 인생 (강릉위의 희망학교) 14:30 레인보우 루비
15:00 로봇 발명왕 러스티(재) 15:30 호기심 나라 오기도 15:45 레전드라이터 삼국전 16:15 주사위 요정 큐비주 16:30 수확이 아홉(재) 16:45 덩동덩 유치원 1~2(재) 17:15 올감한 소망치 레이 17:30 똑막맨 17:45 뽀뽀뽀 뽀로로 18:00 생방송 톨링! 보니하니~4 19:00 사이언스타 Q (개란으로 바꿔끼기) 19:30 EBS 뉴스 19:5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20:40 다큐 오늘 20:50 세계테마기행 (남만에 대하여 멕시코! 4부 혁명에 예술을 넣고) 21:30 한국기행 (소읍기행 4부 바닷마을 다이어리) 21:50 과학 다큐 비온드 (또 하나의 우주, 심해탐사) 22:45 다문화 고부열전 23:35 톨링 다큐멘터리 (위대한 유산, 중앙아시아) 24:05 지식체널e 24:10 EBS 스페이스 공감

知天命이 되는 오늘의 운세 10월 12일 (음 8월 23일 壬申)

<p>子</p> <p>48년생 번수를 고려하고 있지 않으면 크게 당황할 수밖에 없을 것이나, 60년생 안주하려 하지 말고 변화를 시도해 보자. 72년생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가능하다. 84년생 확실적인 시각은 60류를 부르기에 충분하다. 행운의 숫자 : 45, 66</p>	<p>午</p> <p>42년생 힘든 만큼 수학의 결실도 알차겠다. 54년생 억지러라도 실행해야 한다. 66년생 기막히게 좋은 운수이니 성사되기에 부족함이 없다. 78년생 목표를 달성하기가 손쉽다. 90년생 과신한다면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느니라. 행운의 숫자 : 70, 09</p>
<p>丑</p> <p>49년생 규약이 그렇게 된 것은 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61년생 돌발적인 변수가 보이니 기민하게 대처해야겠다. 73년생 평상시에 규칙적으로 이뤄져야 확실한 성과를 보느니라. 85년생 번수를 지킨다면 화도 비켜가는 법이다. 행운의 숫자 : 88, 13</p>	<p>未</p> <p>43년생 연쇄적인 효과를 보게 되리라. 55년생 표준이 될 만한 전례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67년생 가능하므로 기대해도 된다. 79년생 탐스러운 육질의 과일이 출렁출렁 매달려 있다. 91년생 상대의 배려나 사랑을 받을 것이다. 행운의 숫자 : 37, 55</p>
<p>寅</p> <p>50년생 미진한 부분을 보수하여 성의를 다 한다면 대단한 성과를 올릴 수 있다. 62년생 다투면 손해. 양보하면 득이 된다. 74년생 대다수의 목표를 성취하게 되는 길함이 보인다. 86년생 실속없는 짓과 관련된다면 곤란해진다. 행운의 숫자 : 50, 23</p>	<p>申</p> <p>44년생 성과는 미미할지라도 그의 의미는 대단히 크다. 56년생 복잡하게 얽힌 문제를 하나씩 풀어나가는 양상이다. 68년생 바르지 않다면 반드시 바로 잡아 두어야 한다. 80년생 결모습은 별로지만 실상은 양호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46, 97</p>
<p>卯</p> <p>51년생 좋은 계획이라 하더라도 실행하지 않으면 무의미하다. 63년생 보기 드문 길사가 기다리고 있다. 75년생 목전의 사세를 제대로 인식해야한다. 87년생 상대의 말을 다 들어 본 후에 차분하게 판단해도 된다. 행운의 숫자 : 52, 74</p>	<p>酉</p> <p>45년생 내한해 현대 앞에서 초연해질 필요가 있다. 57년생 단편적 이거나 임시적인 것은 관세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69년생 기가 막힌 인연을 가진 외국의 만남이 있을 것이다. 81년생 성과는 미미할지라도 그의 의미는 대단히 크다. 행운의 숫자 : 73, 25</p>
<p>辰</p> <p>52년생 양호한 기분이 원만한 전개를 담보한다. 64년생 잘 살피지 않는다면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다. 76년생 지금은 불리하니 후일을 기약하는 편이 낫다. 88년생 안개가 자욱한 형국이니 그 어느 것도 노출된 것이 없다. 행운의 숫자 : 15, 37</p>	<p>戌</p> <p>46년생 배후가 드러날 수도 있다. 58년생 동행의 기미가 보이거든 머뭇거리지 말고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70년생 행운을 전해주는 소리가 점점 가까이 들리리라. 82년생 희망의 문턱에 들어서게 될 것이니 마음 놓아도 되리라. 행운의 숫자 : 89, 45</p>
<p>巳</p> <p>53년생 원칙에서 벗어난 예외도 상당수 있을 것이다. 65년생 혼동하기 쉬우니 아는 길도 물어서 가지 않으면 아니 된다. 77년생 서로 돕는 것이 바람직하다. 89년생 평상시에 갖추어 있어야 제 때에 활용될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76, 29</p>	<p>亥</p> <p>47년생 수양을 쌓고 지덕을 닦는다면 길경을 맞이하리라. 59년생 거시적이고 종합적인 진단을 한 후 대책 마련을 하는 것이 옳다. 71년생 발전의 주춧돌이 될 만한 길사가 생기겠다. 83년생 체계를 그르치면 행하지 아니함만 못하다. 행운의 숫자 : 01, 08</p>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원영” ☎010-9790-8237